

10장_대구카톨릭대학교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맛보기

화선지에 새겨지는 낯선 이름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 닥친 초겨울의 주말 아침, 뽕뽕 얼어붙은 대학 캠퍼스에는 인적조차 드물었지만 한 강의실에서는 훈훈한 열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이국의 청년들이 진지한 얼굴로 칠판을 마주하고, 교단 위의 선생님은 한글 강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봐도 꽤 수준 높은 한글 수업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통역 봉사를 하기 위해 나온 대학생 5~6 명이 이국의 청년들에게 화선지와 먹, 벼루와 붓을 나눠줍니다. 붓을 잡는 품새가 처음이 아닌 듯 먹물의 농도를 조절하고, 붓을 세웁니다. 하얀 화선지에 익숙한 한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빼뽀 빼뽀 하지만, 충분히 읽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낯설기만 하네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네팔, 베트남에서 온 그들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서 나름의 꿈을 가지고 한국을 찾아온 청년들입니다. 산업연수생도 있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들어온 합법적인 체류자도 있지만, 당연히 불법체류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입장이야 어떻든 그들은 지금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황금 같은 휴일에 이곳에 모여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들은 ‘그들’의 노래

대구 가톨릭대학교 강의실에서 펼쳐진 한글수업이 끝나자 한국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국의 청년들은 경주로 이동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근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불교문화체험에 나서기로 하였지요.

30 여 명의 참가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주최 측, 그리고 통역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대학생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이내 버스에서는 낯선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은 아주 낯설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던 지라, 지루하고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된다고 단정 지었던 편견이 깨지고, 어느새 버스 안은 군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들의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 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 속에서 그들의 음악에 둘러싸여 잠시 이방인의 경험에 빠져 본다면, 작은 버스 안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서 청춘을 보내며 문화와 예술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과 환경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리라.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에 나선 그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한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모여 살며 매일 똑같은 작업장에서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로서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배울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게다가 쉬는 날에도 돈을 벌어야 하기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반이 되는 문화체험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 속에서만 갇혀 지내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리 없고, 짧게는 3~4 년부터 9 년, 10 년 넘게 한국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어난 곳이라는 이미지 외에 특별한 애정은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혈연과 지연이 지독히도 중시되는 나라로서, 이방인으로서의 적응하기가 녹록치 않은 곳이지요.

그들에게 한국의 유별난 민족주의와 혈연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한국사회의 이런 특징을 뚝뚝 뭉친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한국적 정서로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의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소 산업 도시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장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경산 역시 마찬가지로, 진량공단과 와촌, 압량 지역의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무려 3 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10%가 넘는 300 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7 월부터 6 개월 동안 12 차례에 걸쳐 안동과 경주 일대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와 불교문화를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1 회성 체험이 얼마나 그들에게 유용할 것이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한국문화의 뿌리를 먼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최측의 의도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메카를 향해 절을 하다

‘경산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전통문화체험’은 매회 30 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2 회까지 개최되어 경주 불교문화체험에 앞서 먼저 진행된 유교문화체험은 한국 유교문화의 대표지인 안동에서 펼쳐졌습니다.

뿌리깊은 유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찾아 옛 선비들의 옷을 입어보고, 우리나라의 인사법과 예절교육을 받으며, 예(禮)에 대한 한국인의 각별한 의식을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즈넉한 퇴계종가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하회별신굿 탈놀이와 한지 공예 등을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체험을 경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입소문이 되어 그들의 친구와 동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이 4 개월째로 접어들며 많은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루던 10 월 4 일경,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자 참가자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도산서원에서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교의 성전과 다름이 없는 서원에서 메카를 향해 예를 올리는 무슬림의 모습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멋진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민족국가’로 이행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타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다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성과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박물관장이 직접 문화관광해설자로 나서고, 전문적인 통역을 위해 문화인류학자가 참여하며, 매회 3~4 명의 대학생들이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나와 온종일 수고를 아끼지 않는가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결장소에 돌아와서도 숙소까지 돌아가는 교통편이 불편한 참가자들을 위해 귀가까지 책임지는 그들의 노고가 이런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유연성을 발견하다

경주에서 진행된 불교문화체험은 천마총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압지와 석굴암, 불국사를 돌아보며 부지런히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그들의 얼굴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종교적 측면보다 학문적 접근이 우선시되는 유교와는 달리,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의 문화유산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대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의 양해와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난색을 표했지요. 하지만 주최측은 회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그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측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 오히려 기업측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는 등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정립하는 한편, 끊임없이 유입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동시에 국내 기업에게나 한국사회 전반에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쉼 없이 이어질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편견과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미지를 함께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 경산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대구 가톨릭대학교 부설 대구·경북문화예술교육연구소